

# 보성군, '조성리유적' 최초 공개... 학술대회 개최

12일 오전 조성면행정복지센터 마한 제의 장소... 국가유산 추진 유적 발굴 조사의 성과·의미 발표 "마한 유적 엮어 세계문화유산도"

보성군이 '보성 조성리유적'의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조성리유적을 최초로 공개한다.

보성군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조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한문화재연구원과 함께 '보성 조성리유적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보성 조성리유적'의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람과 신을 잇는 대목(大木)의례와 입대목으로 추정되는 주공(구멍)이 발견된 '보성 조성리유적'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로 의미가 깊다.

보성군과 대한문화재연구원은 이번 국가유산 지정 학술대회를 통해 전남 동부에 분포한 여타 유적들과 구별되는 '보성 조성리유적'의 가치를 전달하고, 보

존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

나아가 생활, 방어, 분묘, 수리시설 관련 복합유적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마한문화의 주술적 성격을 확인해 학계와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전남에 분포된 마한 유적과 엮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6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조성리유적의 발굴 조사 성과와 의미(문예은, 대한문화재연구원)를 살펴보고 전남 동부지역의 마한 소국(이동희, 인제대학교)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밝힌다.

이어 조성리유적과 비슷한 시기 구릉에 입지하는 일본의 취락유적(테라마에나오토, 일본코마자와대학 소속)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조성리유적의 특징을 검토해 보고 조성리유적을 통한 마한의 의례(한옥민, 대한문화재연구원)를 복원할 예정이다.

또 한국과 일본 학자의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과 보성의 마한 유산



보성군 조성리 유적 발굴 현장.

보성군 제공

현황 및 활용방안(이범기, 세계문화유산 연구재단), 일본 취락유적의 보존 및 활용(키와이 노리유키, 일본 돗토리현 아오야카미치 역사공원 소속)을 비교 분석하며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서울대학교 권오영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간에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학술대회는 현장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조사 사업으로 조성리 마한 유적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조성리유적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양중수 기자

2024년 고소득 농업인 실태조사 광양시, 20일까지

광양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도 고소득 농업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업인을 조사·발굴하고 우수·성공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고소득 농업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소득기준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의 1년으로, 조사 대상은 올해 기준 농가 소득 50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조사 결과는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농업인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송명중 광양시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지역 농업인과 광양시의 협업으로 농업 경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사로 고소득 농가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농업정책에 지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우수관 정비 등 도시침수 예방 고흥군, 사업비 1008억원 투입

고흥군은 고흥읍(고흥천)과 도양읍(녹동천) 일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1008억원을 투입해 우수관로 30.2km(고흥읍 15.1km·도양읍 15.1km) 개보수와 빗물펌프장 2개소 신설을 포함한 도시침수 예방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고흥읍(고흥천)과 도양읍(녹동천)이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환경부에 도시침수 예방 정비사업을 건의, 도양읍(녹동천)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됐으며 고흥읍(고흥천)은 오는 2026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5년 8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5년 9월 도양읍(녹동천)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전체 사업을 2028년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예술인·기획자 매칭 지원 사업' 순천문화재단, 참여자 모집

순천문화재단은 오는 12일까지 '2025 지역예술인·기획자 매칭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과 기획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예술인·기획자매칭지원사업에서는 각종 기관의 공모사업 지원을 희망하지만, 공모에 필요한 지원신청서 및 기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순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역량 있는 문화기획자들을 1:1 매칭해 공모사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모집 규모는 지역예술인 15명(개인 또는 단체) 내외, 기획자 5명 내외이며 선정된 지역예술인들은 연결된 기획자로부터 한 해 동안 2025년 연간 공모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모집 공고의 자세한 사항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www.cfsc.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문화정책팀(061-746-29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시가 연말을 맞아 로컬 콘텐츠를 경험하며 실 수 있는 1박2일 여행상품 '순천 웰니스 라이프'를 운영한다. 사진은 순천만습지에서 쌍안경으로 흑두루미를 관찰하는 모습.

순천시 제공

"나를 만나는 시간" 순천, 웰니스 라이프 운영

순천시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이들을 위해 1박2일 여행상품 '순천 웰니스 라이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순천 웰니스 라이프'는 남쪽의 쪽빛 바다와 함께 걷는 남파랑길을 비롯해 1박2일 동안 순천의 로컬 콘텐츠를 경험하며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

련됐다.

여행 1일 차에는 겨울 철새 탐조 성지로 알려진 순천만습지에서 생태해설사와 함께 탐조를 진행하고 독길을 따라 사운드 워킹을 하며 소리로 듣는 풍경을 감상한다. 걷기 후에는 순천의 자연을 담은 식사와 함께 아로마 테라피 등으로 휴식을

취한다. 이어지는 2일 차에는 사운드 워킹을 통해 채집한 소리를 듣고, 발도장 페인트 드로잉을 통해 치유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여행상품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2회차 운영되며, 참가비는 1인당 7만원이다. 참가신청은 순천시 누리집 또는 구글폼(<https://forms.gle/W1T4sueYmwtSNvk66>)을 통해 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따뜻한 연말 무료상영회'

장애인 삶 담은 영화 상영 감독과의 대화 등 이벤트

순천시는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 12월 '함박눈 풍경'을 주제로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영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영상미디어센터는 10일부터 발달장애인의 삶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상영한다.

먼저 10일 오후 2시 특수학교 재학생들의 통학길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을 시작으로 오는 12일 오후 7시 다운중후군 캐리커처 작가 은혜씨의 일상을 담은 영화 '니얼굴', 14일 오후

2시에는 발달장애인 부모 이야기를 다룬 작품 '그녀에게'를 선보인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일상과 사랑, 어려움과 희망을 생생하게 담아내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과 서울독립영화제 열혈스테프상 등을 수상한 '그녀에게' 상영 후에는 이상철 영화감독, 발달장애아 부모 모임 '도토리로드' 허하나 대표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이어 오는 21일 오후 3시에는 뮤지컬 영화 '룩키포'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GV)가 진행된다. '룩키포'는 완성을 코앞에 둔 영화 하드디스크의 실종을 둘러싼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영화 제작자들의 의견 충돌 속에서 작품을 완성하려는 한 감독의 치열한 여정을

담았다. 상영 후에는 김태희 감독과 정중식 배우를 초청해 영화 제작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볼 예정이다.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관계자는 "이번 상영회는 시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연말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12월 상영과 관련한 일정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www.scmed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상영회는 무료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061-753-3282)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주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개최 12일, '이순신' 주제 국악극

여수시는 오는 12일 오후 7시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제45회 여주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아름다운 사람, 이순신'이라는 주제로 '불멸의 이순신' 김탁환 작가의 극본에 바탕을 뒀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이끌고 일본군에 맞섰던 과정을 창극과 전통 국악으로 표현했으며, 손웅상 임지휘자의 지휘로 국악단원 43명과 창극 소리꾼, 참검무 객원 등 총 49명이 출연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되새기고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적 자부심과 깊은 감동을 선사할 이번 공연에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가로등 양방향 디밍제어 시스템' 광양시, 국비 4억원 확보

광양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에 도로변 가로등 양방향 디밍제어 시스템 설치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변 가로등 양방향 디밍제어 시스템'은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의 조도를 제어해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고 실시간 가로등 점·소등 상태 감시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광양시는 지난 1월 양방향 디밍 제어 시스템 설치사업 추진을 목표로 전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이번에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8월까지 사업비 총 10억원(국비 4억원, 시비 6억원)을 투입해 2500여 개 가로등에 디밍 제어기, 컨버터, 점멸기 등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가로등 양방향 디밍제어 시스템 사업이 완료되면 심야 시간대 전기 사용량 감소로 전기요금에 절감되고 실시간 가로등 상태 감시로 신속한 보수가 이뤄져 가로등 소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안영준 기자